

복권타자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다

우리마을 사진집 복권타자 2

복권타자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다



ARC

대구광역시북구

북현1동
북현1동주민센터

복현타작(他作) :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남기다

복현타작 2

우리마을 사진집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복현1동 주민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순서

- 008 피란민촌을 둘러보며 박명희
- 018 을 아버지 홍승철
- 024 응답하라 1955 전미희
- 034 허물어지는 집 신예숙
- 042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전청수
- 050 만물상 할아버지 안선미
- 060 빗물들의 배틀 김은정
- 068 동네 한바퀴 조민정
- 076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 최서현
- 084 복현1동 피란민촌 연작 동시 권영세
- 094 복현타작 식구들



수거물에는 따뜻하게
 (주)이파엘지 통합특수방수

원,투룸 싸게드림
 동문1분거리
 2-3방계주 저렴한 분양
 010-4224-3638

원룸
 투룸
 쓰리룸
 010-4224-3638

양옥1
 1. 방 1 / 수
 ◆ 전세 1300만
 ◆ 월세는20만원
 033-9411-
 010-5528-

방있어요!!
 010-4232-1141

금빌라
 28평형(복합동)
 01-1829-8238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피란민촌(복현1동 617-8 일원)은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피란민촌을 둘러보며

글. 박명희

피란민촌은 대구시 북현동에 있는 도시재생구역이다. 주민들은 거의 이사를 가고 가게를 운영하는 몇 집만 남아 있었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비치었으며 지붕이 낮은 집과 옆집과 벽이 붙은 집들이 대부분이다. 지붕 위에 돌과 타이어가 얹혀 있는 집도 있고 이리저리 흩어진 전선 가닥도 보였다. 누추한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시멘트로 길의 이곳저곳을 땀질 한 곳도 보였다.

오래전에 흙길이었을 길을 걸어본다.



벽에 기대어 핀 장미와 국화는 웬지 쓸쓸함과 향수를 자아낸다. 돌보아 준 사람들이 떠나버린 탓일까. 장미의 요염함은 옛 볼 수 없고 퇴색한 국화꽃은 먼 옛날의 우리들의 누이 모습처럼 보였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같기도 하다.

살아가기 힘든 그 때 우리는 이런 곳에서 뛰어다니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은 이웃집이 놀이터이기도 한 동네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에 감동하였다. 작은 쪽문을 바라보니 오래 전에 드나들던 친구 집도 생각나고 부르튼 손등에 글리세린을 바르며 삶을 이어가던 어머니의 시대도 그려진다. 배고픔을 술로 달래시던 아버지들의 시대도 떠올랐다. 더 잘 살기를 고민하며 막걸리 집에 모이던 청년들도 어렴풋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진다. 트로트 가수 영탁은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로 유명하다. 막걸리는 피폐하고 막막한 삶을 이끌어 가야 했을 때 부모님들의 애환을 달래준 술이었다. 삶의 용기를 준 술이기도 하며 절망을 노래하던 술이기도 하다. 가수 영탁은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또 자신의 병든 아버지의 삶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막걸리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 집이 이곳 복현동에 있었다. 숨 가쁘게 오르던 언덕길과 눈이 오면 엉덩방아를 찧던 내리막길을 조심스레 걸어본다. 옆구리에 책을 낀 오라버니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오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 길이다. 그들의 고뇌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밥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운택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국의 화려함을 동경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모두 추억이 된다. 가난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스며있는 이곳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다. 곧 사라질 복현동 집들을 살펴보며 이곳저곳을 기웃대어 본다. 정이 많은 동네, 햇살이 고여서 외롭지 아니하던 곳, 어설픈 웃음꽃을 피우며 그래도 행복하였던 이 마을을 붙잡아 놓을 수는 없을까. 박물관처럼 그대로 보존하여 가끔 둘러볼 수는 없을까.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다시 한 번 뒤돌아본다. 이곳에 머물며 해를 바라보고 구름을 쳐다보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뒤통이 닳은 신발을 신고 보금자리로 돌아오던 그들을 떠올려 본다.

곧 사라지는 이 마을이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삶터였기 때문이다. 그 때는 콩 한쪽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뿌듯하고 즐거웠다. 고독사 같은 낱말이 없었으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일은 더욱 없었다. 재개발이 되면 공중에 보금자리가 생기고 넓고 시원한 길이 이리저리 생길 것이다. 잘 닦은 길 위로 자동차가 달리며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이어 갈 것이다. 협소한 온돌방에 몸을 뉘이던 이곳의 집들을 곧 잊게 될 것이다. 연탄불에 밥을 지어먹으며 바쁘게 쫓아다니던 날들을 잊고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열기에 몸을 데우며 살아갈 것이다. 물기 없는 삶이 되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음이 먼저 간 어른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여 본다. 그들의 노고와 치열한 생존 의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의 이 여유를 누리게 하여 준 그 어른들의 삶을 존경하여 본다. 그들이 견뎌낸 인내와 삶의 향기를 생각하며 버스정류장으로 향하였다.







을 아버지

글. 홍승철

우리 가족이 여기에 이주하여 산지 어언 66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곳에 첫 발을 들어놓을 땐 을아버지 을엄마 나와 여동생 그리고 위로 누나 3명이었으나 여기서 여동생 3명이 태어나 함께 자라며 살았다. 처음엔 흙벽돌로 지은 집에 양철지붕을 덮고 방두칸 부엌하나에 나무을 때는 구들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호롱불을 조명삼아 공부하며 살았다. 밤엔 아버지 팔을 베개삼아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삼국지의 등장 인물들의 활약상을 들으며 잠이들었던 그 때의 모습이 그림책을 보듯 되살아난다.



한번은 아침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갈치구이가 올라와 있었다. 척봐도 식구에 비해 넉넉지 않은 양이다. 율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나는 뱃다구가 좋아~” 그런데 옆에 있던 셋째 누나가 갑자기 갈치구이 하나를 집어 들고 부이나케 먹는다. 살집을 다 발가먹더니 “아버지 여기 뱃다구”하며 내민다. 율아버지는 받아들며 “애가 효녀야”하며 칭찬을 하셨다. 난 어린마음에도 아버지가 우릴 먹이려고 그렇게 말씀했음을 눈치챘다. 난 속으로 셋째 누나는 저렇게 눈치도 없냐며 흘겨봤다.

율아버지는 동네 이웃들로부터 회장님이라 불려진다. 회장님이라 불려진 유래는 내가 알기론 이리하다. 처음엔 이 지역이 복현동 72번지로 통했다. 우리 가족이 이 곳에 정착하여 산지 10년도 안되어 14개정도의 반이 생길만큼의 부락을 이루었다. 한번은 반장회의가 소집되어 동네 회장을 선거하게 되었는데 율아버지가 선출되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오늘 회장선거에서 부끄러워 혼났다고 하신다. “왜요”하며 뭘일일까 궁금해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다. 율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글세 무기명 투표로 했는데 14명중 14명이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게 왜?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본인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율아버지가 부끄러워 혼났다는 의미를 알아채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 다른 사람 이름 쓰시지”하며 웃은 적이 있다. 지금에 와서 72번지 때의 생활을 돌아보니 희로애락이 있었던 이 곳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며 이것이 인생이다 여겨진다.

지금도 난 율아버지가 사셨던 길을 걸어가며 걸어온다.



응답하라 1955

전미희

여기는 공동수도가 있던 자리
설명해주시는 70대와 설명 듣는 50대의
추억의 교집합에는 공동수도에 대한 기억도 있었다.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K-WATER표 수도물도 의심스러워
집집마다 성능 짱짱한 정수기를 들여놓는 시대에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주는 수도물과 빨간 고무다라이에서 꿈틀대던
빨간 실지렁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될까
자꾸만 허물어져 사라져가는
피난민촌의 기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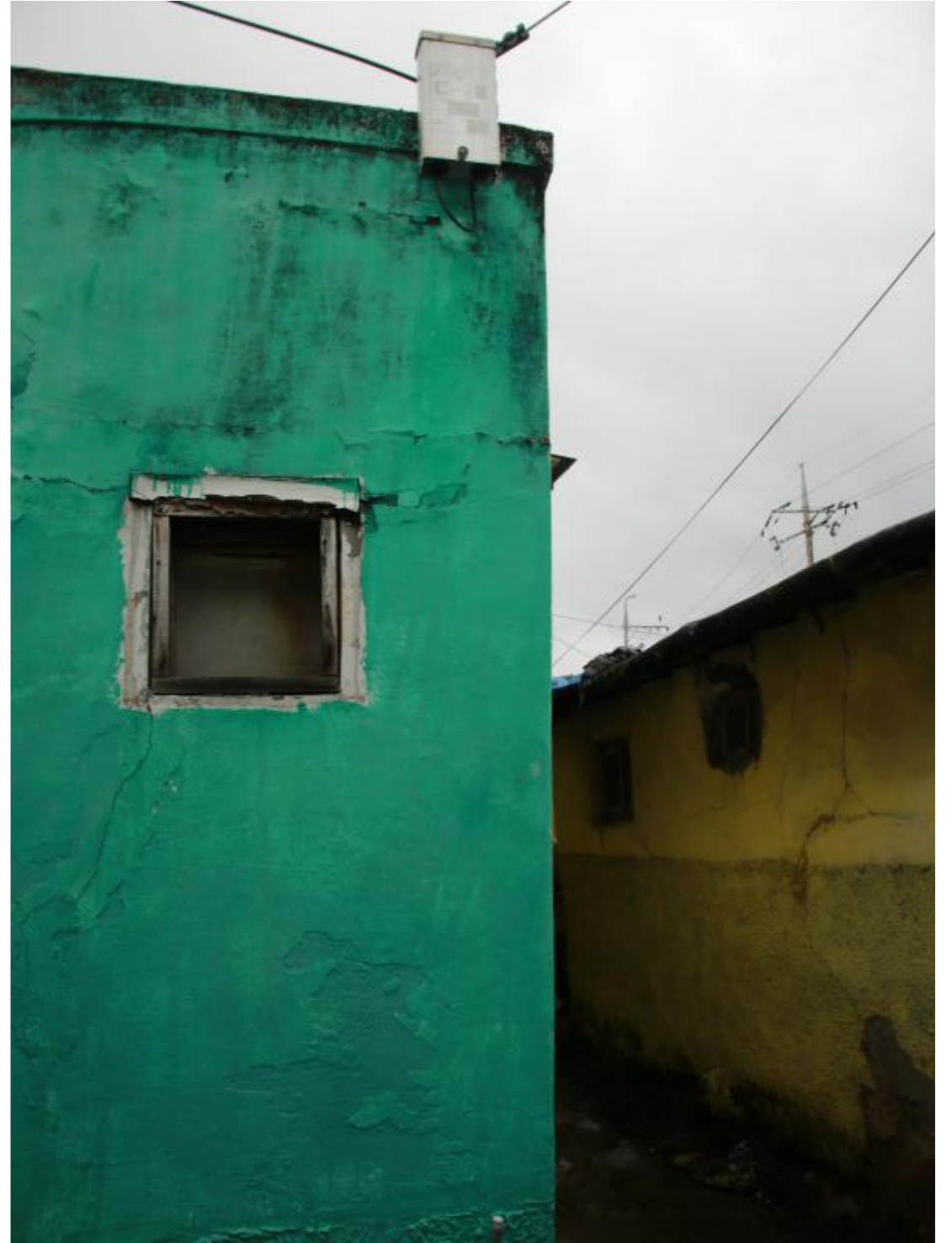


두껍아

전쟁통에 갈곳없고
햇살처럼 스며들어온 비탈마을
깔깔대던 아이들은 자라나
제 갈길 찾아갔네
나름 튼튼했던 담장은
허물어져만 가네
마을사람들은 각자의 의지로
손 흔들며 하나 둘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의 기억은
금발되어 바래져만 가네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더 허물어지기전에
더 떠나가기전에
더 바래기전에
새집짓기전에
他作~





너구리와 곰의 대화

너구리야 너는 찬성?
곰아 너는 반대?
담벼락에 기대어 너구리와 곰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다

피난민촌에 들려오는 도시재생 소식
골목마다 웅성이는 사람들
서로의 여건에 따라
대립각에 첨예한 날이 섰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는데
피난민촌 여기저기엔
끝 모를 이야기들만이
어둠 내려앉은 골목길을
서성거린다



허물어지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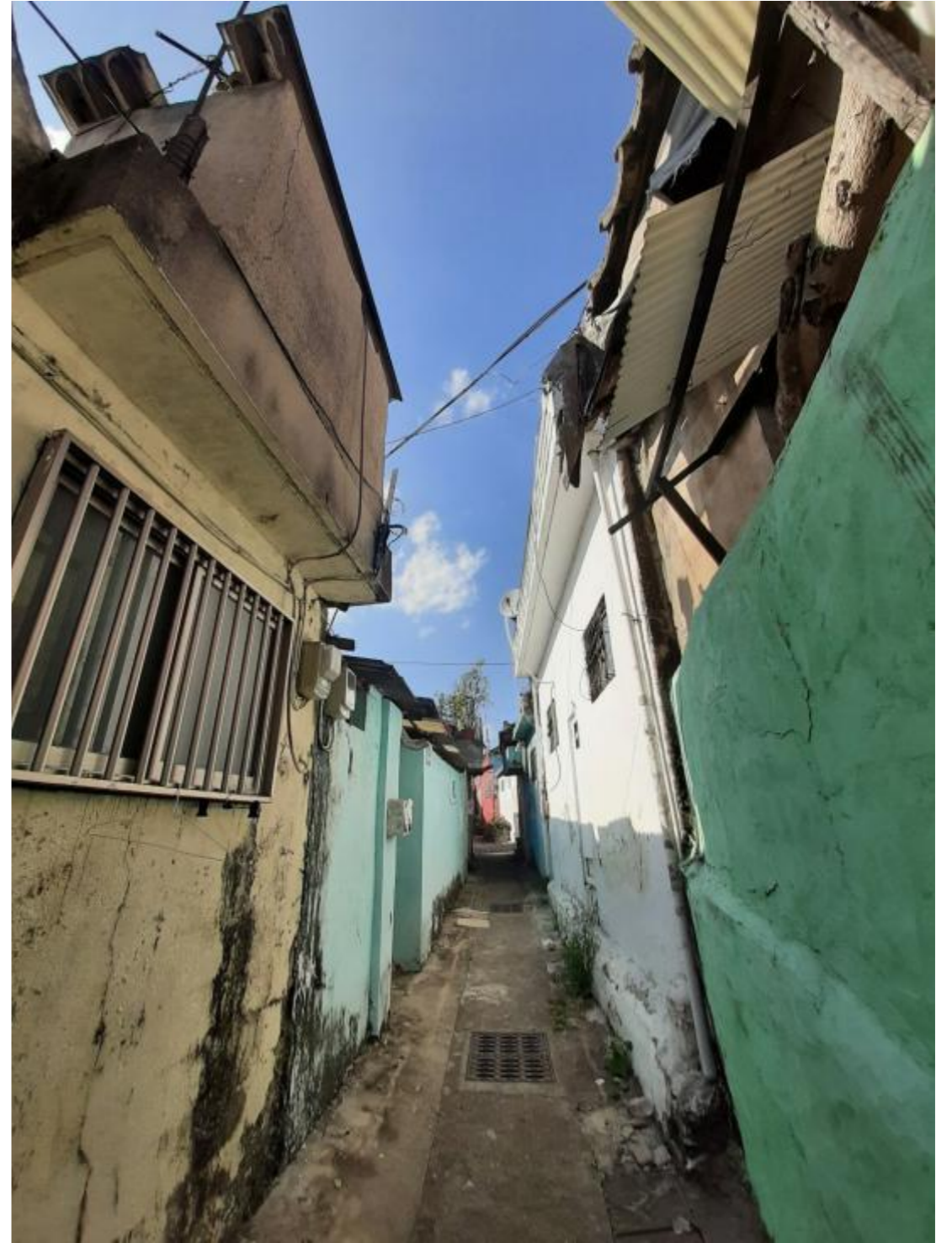
신예숙

수십년 삼사대가 살던 정든 나의터전

고치고 색칠을 해도 이제는 어쩔수 없이
새롭게 다시 바꿔야할 때가 되었음을 실감 한다.









福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전청수

이곳은 복현동 피란민촌입니다.
다들 복현동 72번지라고 불렀답니다.
오래전, 황량한 산만맹이에 구~구~구~ 비둘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을 아버지, 어머니가 질곡의 무게를 잠시 뉘고
나와 동생들이 태어나고 뛰어놀았던 곳입니다.





집들은 개미 땅굴집같이 엉킨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름진 부모님의 굵은 핏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걱정이 많습니다.
마른하늘에 먹구름 깔리고, 성난 바다는 흰 포말을 부딪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지매, 회의는 했~능기요? 어떻게 된대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따스한 온기 한 방 가득한데
조그마한 비둘기 집들이 헐리어 나간답니다.
변화라는 거센 물결에 안간힘을 다해 볼 뿐입니다.



처마가 입맞춤하고 대문과 대문이 맞닿은 골목길은
도란도란 집안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쿵. 쿵.' 황 씨 아재 발걸음. '똑. 똑.' 순이 고모 발소리.
자박자박 내 어릴 적의 추억과 꿈이 자란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낮선 사람들만 들락거리면, 보상금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쿵덕거립니다.
빨강고 노랑계 담벼락에 칠해 놓은 내 모습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지내오셨는가?
왜 그 힘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했는가?
자꾸만 물어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복현타작(伏賢他作)은
어머니를 그립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를 추억합니다.
꽃잎이 떨어진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복현동 72번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물상 할아버지

안선미

복현타작(他作)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네를 돌아다니다 만물상을 보았다.
처음 할아버지와 만난 날 멋지게 앉아 계셔서
“어르신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하고 여쭙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멋지게 포즈를 취하셨다.
만물상을 하신 지 꽤 오래되었다는 할아버지..





예전엔 여기서 모든 물건을 팔았다.
 버스 토큰을 구입하기 위해 남문시장까지 갔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동네를 떠나도 나는 여기에 허가가 된다면
 지금 건물을 헐고 4층으로 집을 짓고 싶다"라며 말씀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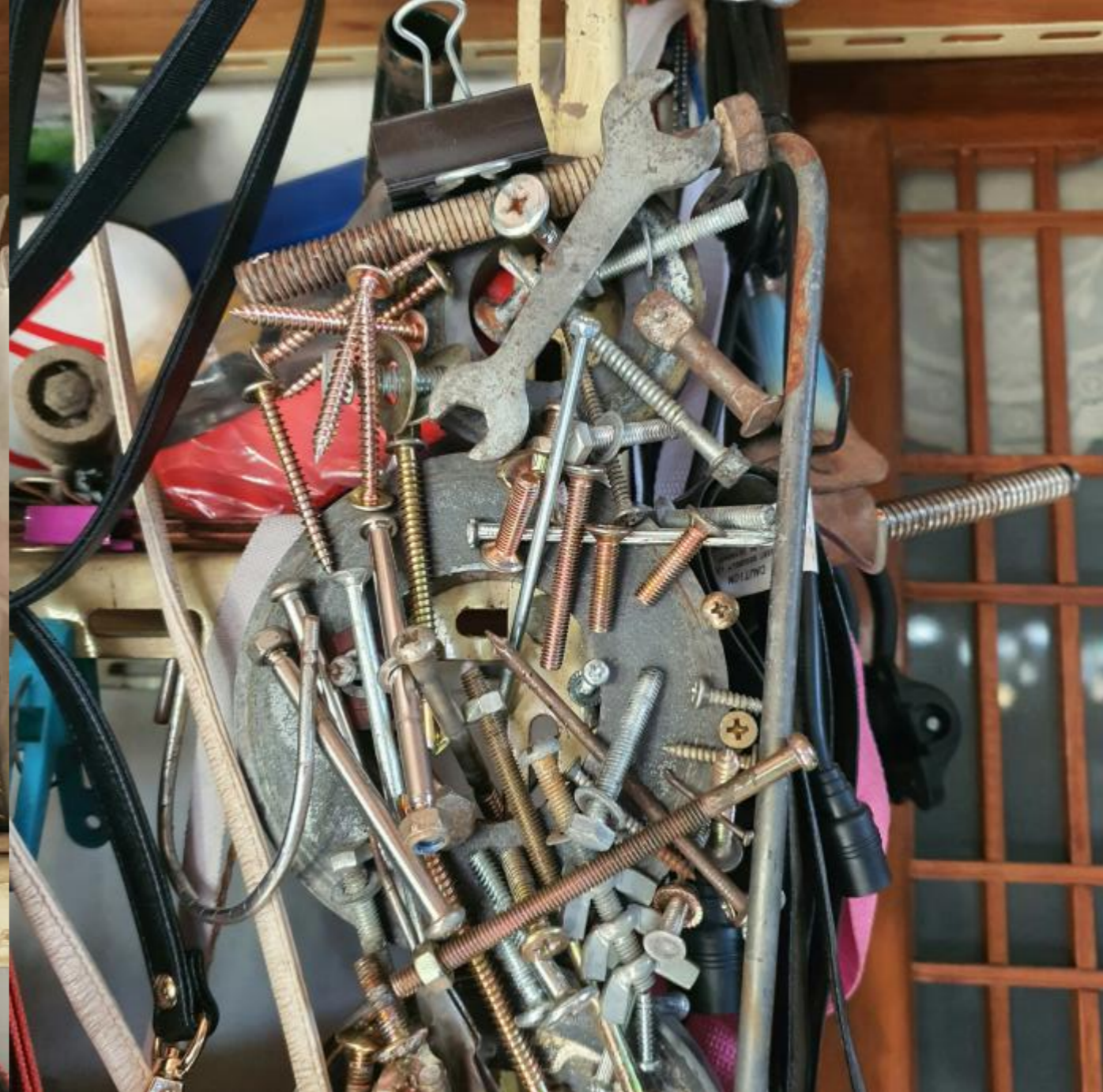
“어르신,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액자에 넣어서 갖고 왔어요.”
 멋진 포즈의 할아버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다시 찾아가서 전해드리니
 “아이고.... 이렇게 멋지게 나오게 해주셔서 고마워요.”하며
 오히려 더 고맙다 하신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엔 할아버지의 역사와 세월이 담겨있었다.
오래된 낡은 전자제품, 옷, 가위, 시계 추, 재봉틀, 드라이기,
옷, 선풍기 등등 많은 것들이 가게 안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오래된 만물상을 보다가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만물상 가게 안에는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다.





빗물들의 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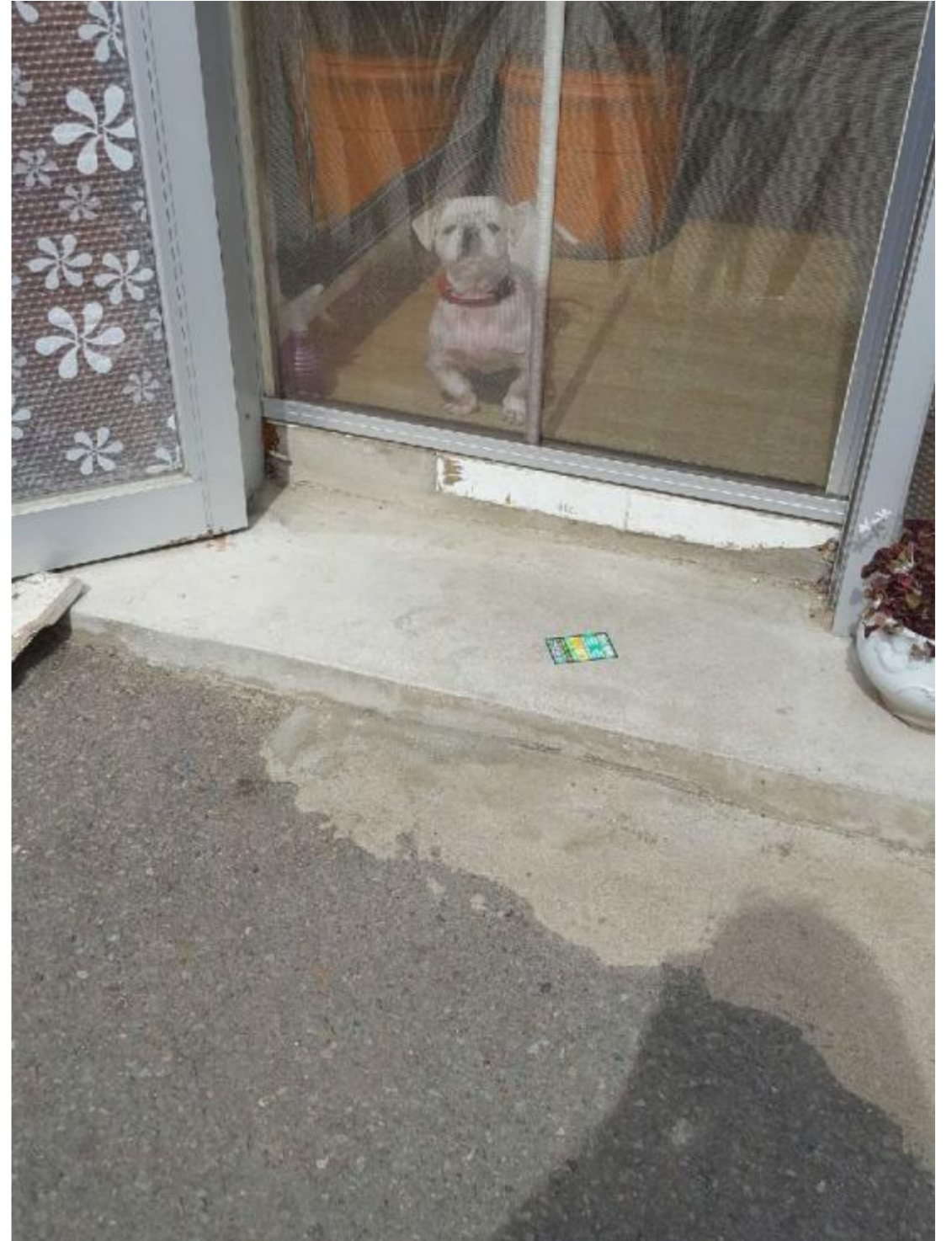
김은정

누가 제일
빨리 다이빙 할래?









동네 한바퀴

조민정









040-4350 →

10

Handwritten note on a yellow sticky paper.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

최서현

대구 도심, 경북대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복현 피란민촌'

수십 년 삶의 흔적이 새겨진 좁고 긴 골목길
그 길 사이로 마주한 대문들
이웃의 정으로 닳아진 손 때 묻은 문고리

피란민촌의 좁고 긴 골목길을 걸으면 불편함 보다는 편안함을 느끼고
햇살이 비추지 않아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길이다.

복현타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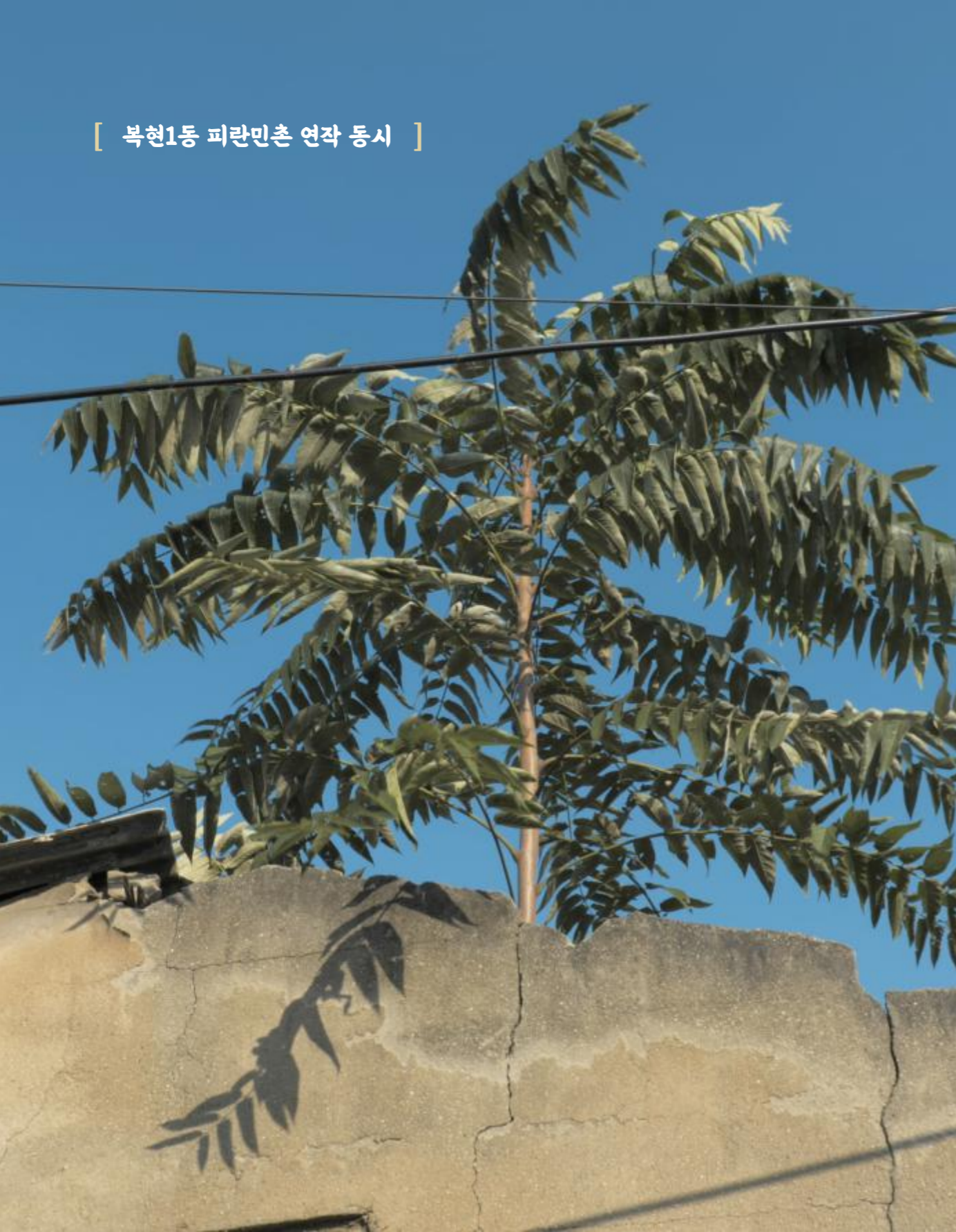








[복현1동 피란민촌 연작 동시]



골목지킴이 자귀나무 / 권영세

우리 할아버지 어릴 적 심었다는
아기자귀나무 세월을 먹고 훌쩍 자라
이제 할아버지나무가 되었네.
쭉쭉 뻗은 가지마다 무성한 잎사귀 하늘 덮어
한여름 땀별 가리는 그늘이 되었고
세찬 소나기 쏟아질 땐
빗줄기 막아주는 커다란 우산이 되었지.
나무 아래 올망졸망 모여앉아
공기놀이 하던 아이들도 성큼 자라
모두 제 갈길 가고 없는 골목에
자귀나무 텅그러니 서 있네.
이제는 바람이 잠깐 나뭇잎 흔들다 가고
저녁 어스름 집으로 돌아가던 새들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 재잘거리는 소리 들으며
자귀나무 골목에 혼자 서 있네.

※ 자귀나무 : 콩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으로 키는 3~5m 정도이며 가지는 옆으로 길게 퍼진다.



우편함 / 권영세

녹슨 철대문 우편함에
수북한 우편물들 머리 내밀고
누굴 저리도 기다리나.
오랜 날 눈비 맞고 빗바랜 봉투 속
편지지 빼곡 적힌 사연들이
밖을 나서지 못해 답답해하는 걸까?
식구들 모두 떠난 빈집 지키며
하마나 하나마* 반가운 손길 찾아올까봐
매일 온종일 마음 졸이며
가슴에 꼭꼭 편지를 품고 있네.

※ 하나마 : '이제나저제나'의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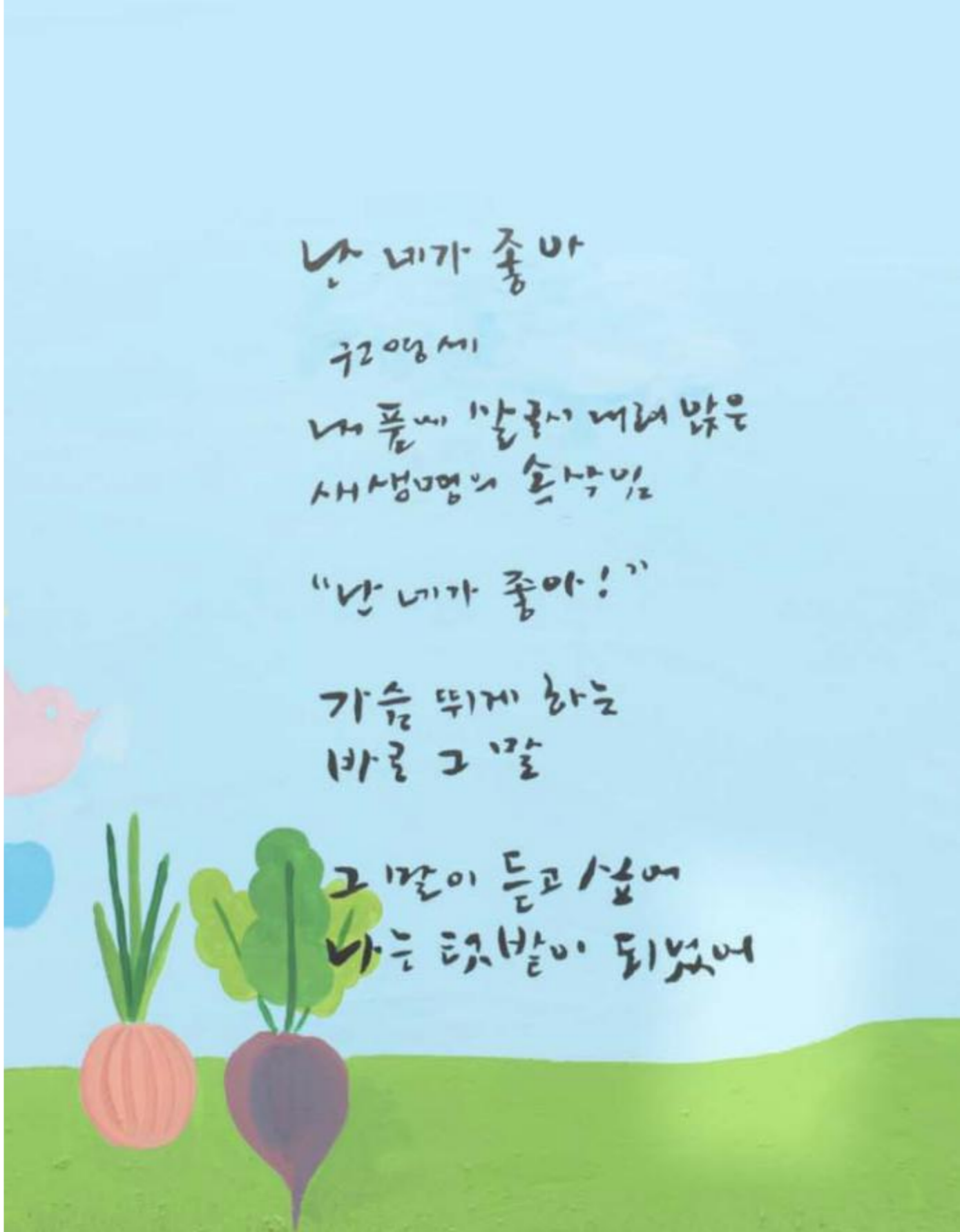
멈춰 선 손수레 / 권영세

좁은 골목길 한 쪽에
장맛비 맞고 서 있는 손수레
오랜 세월 골목골목 쏘다니며
온갖 재활용품 등에 가득 싣고
저녁이면 터덜터덜 집을 찾아 굴러오더니
언제부턴가 꼼짝 않고 한자리에 서 있네.
손때 반질반질하던 손잡이는
이제 빨갛게 녹이 슬어 꺼칠해지고
잠시도 멈추지 않는 시간은 흘러만 가네.
바쁘게 굴러다니던 그 날들을 기다리는 걸까?
골목길에 손수레 멈춰 서 있네.

권영세 약력

1980년 계간《아동문학평론》, 1981년《월간문학 신인작품상》동시 당선 등단
동시집『겨울 풍뎡이』, 『깡거루 우리 엄마』, 『권영세 동시선집』 등 여러 권
창주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대구시문화상(문학), 대구문학상 등
초등교장·대구교육대학교 학부 및 교육대학원 <아동문학> 강사 역임
대구문화재단 2021년 예술인 파견사업-「예술로(路) 대구」참여예술인 활동

현재 :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이사), 한국동시문학회, 대구아동문학회 등 회원,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문학창작교실> 교수





어서 어서 자라라
삼겹살이 기다린다

- 신예숙



어깨는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 <엄마의 인생법>, 현숙경

* 두 편의 시는 권영세선생님의 '디카시 특강'을 듣고 쓴 작품입니다.

















북현타작 2

우리마을 사진집

길잡이
현숙경

진행
최서현

사진과 글
북현타작 식구들

김기숙 장화선 정정순 백명숙 전미희 조민정
신예숙 안선미 김은정 전청수 박명희 홍승철

캘리그래피
전미희

디자인
올타쿠나

인쇄
대동출판인쇄

펴낸곳
올타쿠나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이 책자는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